

도내 주요대학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경쟁 치열

전북대 6.71대 1 · 원광대 5.82대 1 전주대 5.71대 1 · 군산대 4.6대 1

학과별 경쟁률 전북대, 의예과 · 원광대, 한의예과 · 전주대-군산대, 간호학과 가장 높아

도내 주요대학의 수시모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는 201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6.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수시모집 경쟁률 6.29대 1보다 0.42%p 상승한 수치다.

전형별로 학생부종합전형이 6.03대 1, 학생부교과전형이 7.03대 1로 집계됐다.

총 모집인원 2,139명에 1만4,347명이 지원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모집인원 701명에 4,232명이 지원했으며, 학생부교과전형은 모집인원 1,438명에 1만 115명이 지원했다.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일반전형과 지역인재특별전형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예과 일반전형은 10명 모집에 368명이 지원해 올 수시모집에서 가장 높은 3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의예과는 18.5대 1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큰사람전형은

303명 모집에 2,871명이 지원해 9.48대 1, 학교장추천전형은 22명 모집에 103명이 지원해 4.68대 1, 창의인재전형은 39명 모집에 163명이 지원해 4.18대 1을 기록했다.

국가보훈대상자전형은 21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 2.29대 1, 사회통합전형은 13명 모집에 115명이 지원해 8.85대 1, 만학도전형은 14명 모집에 14명이 지원해 1.0대 1, 농어촌학생전형은 115명 모집에 516명이 지원해 4.49대 1, 기회균형선발전형은 78명 모집에 382명이 지원해 4.90대 1,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은 96명 모집에 25명이 지원해 0.21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나타냈다.

원광대학교는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평균 5.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원광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일반전형 등 9개 전형에서 총 3,025명을 모집한 가운데 1만7,607명이 지원해 전년도(5.52대 1)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경쟁률을 보였다.

학과별 최고 경쟁률은 일반전형 한의예과(자연)가 8명 모집에 508명이 지원해 63.50대 1을 기록하고, 학생부종합전형 경찰행정학과가 6명 모집에 258명이 지원해 43.00대 1의 경쟁률 기록했다.

또한, 2017학년도부터 개편되는 창의공과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기공학과 7.92, 기계공학과 14.43, 스마트자동차공학과 9.14, 건축공학과 7.14, 도시공학과 6.29, 디지털콘텐츠공학과가 4.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농식품융합대학 식품생명공학과가 8.40대 1을 기록했다.

한편, 원광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1월 18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11월 21일 면접을 실시하고, 예체능 실기 및 체육특기자 면접은 11월 23일 진행된다.

전주대학교는 2,144명 모집에 1만 2,244명이 지원해 평균 5.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5학년도 5.38:1, 2016학년도 6.85:1에 이어 2017학년도에도 5.71:1을 기록

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경쟁률 5:1을 상회하고 있다.

모집전형별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퍼스타전형의 간호학과가 29.1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같은 전형의 물리치료학과가 19.13대 1, 경찰행정학과 14.33대 1의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형유형별로는 527명 모집에 3,594명이 지원한 수퍼스타전형이 6.8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21일 마감한 2017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1,221명 모집에 5,564명 지원으로 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일반전형 4.1 대 1(모집 647명, 지원 2,651명), 지역고교 출신자전형 5.0 대 1(모집 99명, 지원 498명), 특기자 3.2 대 1(모집 52명, 지원 168명)이고, 학과별로는 새만금 인재 전형 간호학과 29.3 대 1, 사회복지과 22.6 대 1, 해양경찰학과 12.8 대 1 등이다.

/고민형 기자 ·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문정근 기자



생애주기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 제공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 모바일 앱 통해 이용
보건소 직접 방문하게 되는 번거로움 없어

전주시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애주기와 질병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수)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민 개개인이 원하는 보건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생애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 구축을 완료, 시민들에게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보건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면 생애주기(연령)별 · 수해특성(질병)별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들이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게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모바일 앱 설치 후 자신의 생애주기와 특정 질병정보 등을 미리 설정해 주면 되며 신청자가 주민센터와 시청 · 구청 민원실, 보건소 등을 방문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보건정보 자동알림서비스 제공지역을 전주시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맞춤형 보건정보서비스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어울림학교 10개교 추가 공개모집

내달 20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이 어울림학교 10개교를 추가 공개모집한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어촌 학교 중 학생수가 60명 이내인 초 · 중 · 고 중 10개교를 마을학교 협력형 어울림학교로 지정한다.

마을학교 협력형 학교로 지정되면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이 운영하게 된다.

현재 도내에는 99개의 어울림학교가 있으며 공동통학구형과 작은학교 협력형 · 테마형 · 마을학교 협력형 등 4가지 형태가 구성 돼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정된 학교는 내년 3월1일부터 1년간 운영하게 된다. /고민형 기자

호원대, 수시모집 경쟁률 9.1대 1

실용음악학부, 32명 정원에 3747명 지원으로 가장 높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22일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1,116명 모집에 10,153명이 응시해 9.1대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별 경쟁률은 ▲실용음악학부가 32명 정원에 3747명이 지원해 117.09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공연미디어학부가 50명 정원에 1525명이 지원해 30.5대 1을 ▲간호학과는 39명 정원에 717명이 지원해 18.38대 1을, ▲호텔관광 · 항공학부는 59명 정원에 757명이 지원해 12.83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아울러 ▲물리치료학과가 26명 정원에 198명이 지원해 7.62대 1, ▲응급구조학과가 32명 정원에 185명이 지원해

5.78대 1 등의 경쟁률로 특성화 학부 · 과들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해 호원대 수시 모집에서는 총 1117명 모집에 1만327명이 응시해 10.1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호원대는 이번 2017학년도 신 · 편입생들의 학교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도록 장학혜택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호원대 수시전형은 22일부터 실기 및 면접고사 예약에 이어 24일 면접고사를, 오는 10월 1일부터 열흘간에는 실기고사를 진행하며, 서류제출 해당자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제출해야하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10월 25일 오후 2시 호원대 홈페이지(www.howon.ac.kr)를 통해 발표된다. /군산=문정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미래성장동력 탄소소재 제품 상용화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개소... 지역 강소기업 성장에 큰 역할 기대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전북의 미래성장동력 탄소소재 제품 상용화를 통한 탄소산업 저변확대에 나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22일 김승수 전주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유영목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과 탄소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60억원을 투자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내에 지상 3층, 4257㎡의 규모로 고온·고정밀 압축성형용 프레스(HPRIM) 등 상용화에 필수적인 첨단 장비 14종을 구축했다.

이 장비는 지난 5년간 수행한 탄소밸리구축사업으로 도입돼 독일 BMW社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첨단 장비로, 대부분 국내 최초로 운용돼 탄소소재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긴 제작시간과 고비용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용화기술센터 구축으로 기술원은 탄소소재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섬유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포트폴리오



탄소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 개소식이 22일 전주시 덕진구 운암로에 위치한 탄소복합재 상용화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개소식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하진 도지사 등이 기념 티오프 커팅을 하고 있다.

를 구성, 제품개발시간단축과 비용절감으로 향후 우수기업 유치와 지역강소기업의 성장에 다짐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제조시간은 3시간에서 5분으로 단축, 경제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은 “구축된 첨단장비를 활용해 지역 내 탄소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타 지역의 기업유치를 통한 전북도와 전주시가 대한민국 탄소산업 허브로 거듭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서해의 푸른바다와 함께 꿈과 희망을
군산시수협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조합장 김광철
상임이사 전진세

수협의 예금, 카드, 대출은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미래의 동반자로서 당신의 금융생활과 함께하고!
수협의 수산물물은 어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며!
수협공제는 “어려움을 같이 한다” 는 뜻으로 고객들과 항상 어려움을 같이 합니다!

“수산의 푸른 미래 창조”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www.gunsansuhyp.kr